

조경수의 다양한 활용

10 나무의 결실

(마지막회)

- 늦가을에 만난 나무들 -



겨울이 지척이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단풍나무(선종)



열매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선종)



리본 깎베나무(선종)

줄직삼나무의 보랏빛 열매(선종)



늦가을 나무줄기가 드러난 숲이 아름답다.(선릉)

길을 걷다보면 간혹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은행을 만나기도 하고(도시에서는 이미 누군가의 발에 밟혀서 뭉개져 있기 십상이지만), 몇 개 아슬아슬 남겨져 있는 감이 담장 너머로 보이기도 하는 요즘이다. 나무가 열매로 자신의 결실을 보이는 가을. 물론 잡지가 발간되었을 지금은 가을이라기보다는 겨울이라는 느낌이 강하겠지만, 원고를 위해 사진을 찍던 11월 말은 늦가을의 느낌이 더 강했던 시기였다.

가을은 때론 쓸쓸하고, 때론 아름답고, 가끔은 처연(淒然)하지만, 강한 인상에 비해 그 기간은 매우 짧아서 금세 기억에서 잊혀진다. 여름이나 겨울처럼 강렬하지 못하기 때문일까. 곧 더 추운 겨울이 닥칠 것이다. 12월이면 지난 1년을 되돌아 보아야할 때다. 올 한해의 결실을 점검하고, 내년도의 목표를 세우는 시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실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조수연
(주)이자인_이사
www.ezign.kr
E-mail : landivity@hanmail.net

서울 선릉의 늦가을 나무들

보통 나무의 결실은 열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어찌면 나무의 결실은 열매만이 아닐지도 모른다. 나무가 자연에서, 그리고 도시에서 만들어 주는 결실은 비단 열매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대기를 정화시켜 주는 기능이나, 산소를 배출해 주는 등의 나무의 생리적 기능을 제외하더라도 여름에 그늘을 드리움으로써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휴식이나 아름다운 꽃을 통해 보여주는 심미감 같은 것도 일종의 결실이라 한다면, 나무가 이루어내는 결실은 무척 많지 않을까.

늦가을 11월의 끝자락에 선릉을 방문할 기회가 있

었다. 도심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너른 숲이 있는 공간. 왕릉이긴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 이제는 공원과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곳. 선릉에서 만난 숲은 다가온 겨울을 알리듯 옷을 벗었고, 그래서 더욱 선명하게 줄기가 드러났다. 나무줄기들로만 이루어진 숲은 오히려 아름답고 쾌적했다.

그리고 산책로에서는 올 한 해 동안 가지 끝에 달려 제 역할을 다했을 잎들이 단풍으로 물들기도 하고, 아슬아슬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버드나무도 아직 연두빛을 남겨두었다(섬진강)

도 단풍나무는 아직 제 잎을 떨구지 않고, 방문객들을 반기고 있었다. 단풍나무는 여름에는 그늘로,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으로 자신을 결실을 선물하고 있다.

나뭇잎을 거의 떨어버린 팔배나무는 잎 대신 붉은 열매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고, 또 겨울철 먹이를 찾는 새들에게 아낌없이 열매를 나누어줄 태세다. 감나무 접붙이기의 바탕나무로 쓰이는 고욤나무도 갈색열매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좀작살나무의 보라색 열매도 선명한 색깔로 눈길을 끌었고, 울타리용으로 많이 쓰이는 검정색

쥐똥나무 열매도 아직은 그 역할이 있다는 듯 제자리에서 가는 가을을 아쉬워하고 있었다.

섬진강 하구의 늦가을 나무들

같은 시기 멀리 남쪽 바닷가는 어떨까. 크지 않은 나라이지만 남도 지방의 나무와 서울지역의 나무는 차이가 있었다. 전라남도 순천, 광양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 섬진강 하구 지역을 찾았다. 선릉을 방문한 것과는 불과 며칠 사이의 시간차이. 똑같이 겨울을 지척에 두고 있었지만 눈에 띄는 차이들. 아직 푸른빛을 간직한 수많은 나무들. 어쩌면 겨울 내 그런 모습일지도 모를 듯싶은 남도의 나무들.



당단풍의 아름다운 노란빛 단풍(섬진강)



아름다운 섬진강 하구(섬진강)



산책로 옆의 생울타리도 남도지방임을 드러내고 있다(섬진강)

섬진강 하구의 매화마을 앞 강변에서 만난 피라칸타, 동백나무는 여전히 푸른 잎을 달고 있어 색다른 생동감을 준다.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피라칸타는 오히려 지금이 제철인 듯 가슴을 설레게 한다. 동백나무의 붉은 꽃도 다가오는 겨울을 반기는 것처럼 아름답게 피어 있다.

섬진강 하구로 조금 더 내려가 보았다. 바다와 만나 삼각주가 형성되고, 천천히 흐르는 강물이 지는 해를 맞아 반짝이는 곳. 배알도해수욕장에서 만난 당단풍은 해를 맞아 눈부시게 빛나고, 가을이 남겨준 환상의 노란빛 결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바닷가에 서서 당당히 가지를 드리운 버드나무도 아직은 연둑빛 색깔을 남겨놓아 마음을 사로잡았고, 데크 산책로 앞에 심겨진 생울타리도 두툼한 초록의 잎으로 여전히 싱싱한 남도의 분위기를 한껏 드러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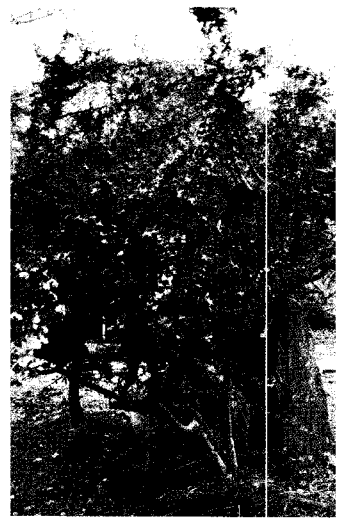
섬진강에서

올해는 운이 좋은지 아름다운 섬진강을 바라보며 가을을 마무리 하고, 또 동시에 한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어떤 의미였는지, 과연 변화했는지, 성장했는지, 결실은 얻었는지. 늦가을의 나무들은 나를 돌아보게 한다. 올 한해의 결실은 무엇이었는지 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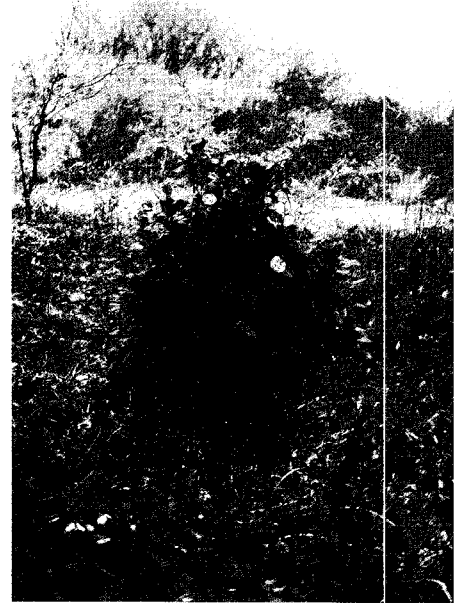
그동안 약 1년 6개월에 걸쳐 '나무 이야기'를 소개하였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기간이었지만, 원고를 준비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부족한 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다. 아쉽지만 이번을 마지막으로 연재를 마감하고자 한다. 그동안 글을 읽어주신 독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취통나무열매(선홍)



진한 녹색 잎과 대비되는 열매가 아름다운 피라칸타(섬진강)



동백나무에는 붉은 꽃이 피었다(섬진강)